

쉬어가는 페이지 1

공보리밥과 가평현감

가평현감과 관련해 서울 동대문구에 전해져오는 옛 이야기다. 그야말로 허황된 이야기이기는 하나 그런대로 배움이 있어 그대로 실어본다.

조선 선조대왕 때 영의정을 지냈던 오성 이항복 대감께서 경기도 가평으로 여름휴가를 가던 길이었다. 대감께서 공무가 아닌 사행길이라 평복차림으로 그 당시 고관들이 타던 가마 대신 조랑말을 타고 하인 한명을 앞세워 길을 떠났다.

가평을 향해 부지런히 가던 중 배가 고파 한 주막엘 찾아 들었다. 당도해보니 마침 새로 가평현감으로 부임하는 신임현감의 깃발이 바람에 나풀거리고 있었다. 오성대감은 잠자코 주막집에 들어서며 주막집 주인을 불렀다. 다가온 주인에게 밥 한상 차려줄 것을 요구했더니 음식이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이항복이 주막을 둘러보았다. 가평현감을 호종하는 사람들이 마당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다. “주인장 그럼 저기 저 사람들이 먹는 것은 음식이 아니고 무엇이요?”

“죄송합니다만 저 음식은 우리가 내놓은 것이 아니고 새로 사또로 부임하시는 어르신 한양 본택에서 준비해 온 것입니다.”

“아니! 그럼 이 집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요? 내가 많이 시장해서 그러니 먹다 남은 찬밥이라도 가져오시오.”

대감께서 사정을 하셨다. 주막집 주인이 노인의 행색을 자세히 보니 연세도 지긋한데 오죽이나 시장하면 저러실까 측은하게 여겼다.

“영감님, 정 그러시다면 방에 들어가십시오. 비록 보리밥이긴 하지만 아침에 먹었던 식은 밥이 있으니 상을 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대감을 사랑방으로 안내했다. 주막집이란 본래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 대감께서 들어가 보니 방 아랫목은 이미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 먹고 있는 신임현감 일행의 차지였다. 할 수 없이 방 윗목에 쪼그리고 앉아 밥상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려온 밥상을 보니, 콩보리밥 한 덩어리에 보리된장 한 접시 찬물 한 그릇 달랑,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어찌랴? 시장하니 잡수실 수밖에.

대감께서 콩보리밥에 시켜면 보리된장을 비벼서 맛있게 먹고 있을 때였다. 아랫목에 있던 신임현감이 대감을 불렀다.

“노인장!”

“어찌 나를 부르시오?”

“노인장께서 먹는 음식이 무언지 모르지만 무척 맛있어 보이는데 그 밥 한술 얻어먹을 수 있겠소?”

“그러시구려. 사람이 먹는 밥을 사람이 나눠 먹자는데 인정상 어찌 안 된다 하겠소이까? 기꺼이 드리리다.”

대감은 그릇째로 신임현감 앞에 내밀었다.

현감이 그걸 받아서 보리된장에 범벅된 식은 보리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씹어보니 맛은커녕 보리알이 와글와글, 된장 맛은 시큼 털털. 얼마나 역겨웠던지 대감이 보

는 앞에서 그만 튀! 하고 뺏어버렸다.

“노인장 행색을 보니 그렇게 안 보이는데 딱하기 짝이 없구려. 이런 걸 음식이라고 먹는 걸 보니...”

신임현감은 힐난까지 했다.

하지만 대감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남은 보리밥을 다 먹고 주막을 나왔다. 그리고 얼마쯤 가다가 하인을 주막에 있는 현감에게 보냈다. 하인이 신이 나서 뛰어가 큰소리로 외쳤다.

“이리 오너라. 영의정 오성 대감님의 지엄하신 명입니다. 신임 가평현감은 내일 모레 정오에 가평에 있는 김 판서 대감 사저 정문에 대령하십니다.”

신임 가평현감은 눈앞이 아찔하였다. 이젠 죽었구나 싶었다. 하지만 하늘같은 영의정 대감의 명이니 어찌 안 갈수가 있겠는가. 가슴이 덜덜 떨렸다.

한편 오성대감은 주막집을 나와 얼마를 가다가 느티나무 그늘에서 입에 장죽을 물고 쉬고 있는 선비를 보고 가던 길을 멈추었다.

“선비양반, 담뱃불 좀 얻읍시다.”

대감께서 긴 담뱃대에 연초를 채면서 선비에게 말을 건넸다.

선비가 입에 물고 있던 담뱃대를 건네며 말했다.

“노인장께서는 이 더위에 어디를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길손끼리 만났으니 통성명이나 하고 가십시오. 저는 청평에 사는 조길생이라 합니다. 노인장의 존함은 무엇입니까?”

“나 말씀입니까? 내 이름은 이항복이라 하오”

그때 갑자기 선비의 안색이 확 달라졌다.

“거참! 노인장의 이름자를 바꾸셔야겠소이다.”

“아니! 이름자를 바꾸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조금 전에 이항복이라 하셨잖소이까?”

“그랬소. 내 이름이 이항복이오. 그런데 선비께서 느닷없이 남의 이름을 바꾸라니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구려.”

“노인장 함자가 이항복이라니까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신 영의정 대감의 함자를 쓰다니 너무 무엄하지 않소이까?”

대감께서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한 번 선비를 자세히 살펴보니 일자로 다문 입이며 선한 눈빛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선대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어찌 쉽게 바꿀 수 있겠소?”

대감께서 일부러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자 선비는 더욱 목 소리를 높였다.

“오성대감은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국로(國老)이시

오. 아무리 노인장의 이름이라 하더라도 그 어르신들의 존함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오이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하오이다.”

당부까지 했다.

“예, 선비의 말 내 생각해보리다.”

대감은 그 자리를 벗어나 가다가 하인을 시켜 그 선비에게 명을 내렸다. 하인이 신이 나서 뛰어가 선비에게 전했다.

“선비는 듣거라. 영의정 오성대감님의 지엄하신 명입니다. 내일 모레 정오에 가평 김 판서 사저로 반드시 대령하랍신다.”

선비 또한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영의정 어르신을 몰라보고 무엄하게도 큰소리로 꾸짖었으니 아무래도 치도곤을 당할 것 같았다.

드디어 약속된 날 정오에 김 판서 사저에는 문제의 신임 현감과 선비가 나타나 오성대감을 기다렸다. 잠시 후 오성대감께서 나타나 먼저 현감에게 말했다.

“신임 가평현감 윤아무개는 들어라. 그간 계속된 흉년으로 백성이 도탄에 빠졌거늘 목민관의 신분으로서 가난한 백성들이 상시로 먹는 보리밥 한 술을 못 삼키고 뱉으니 어찌 백성들의 고달픔을 헤아리겠는가? 이 길로 너를 가

평현감에서 과직하니 한양으로 즉시 돌아가 네 아비 윤승지에게 가서 내가 아직은 관직에 오르기는 이르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하고서 이어서 선비에게 말했다.

“선비 조길생은 들어라. 그대는 품성이 따듯하고 인정을 베풀 줄 알며 무릇 사물을 보는 눈이 바르니 내가 그대를 임시로 가평현감으로 봉하고 한양에 가서 임금님께 교지를 받아 내려 보낼 터이니, 이제부터 백성들의 아픔과 고달픔을 보살피는 어진 목민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라.”